

현대일본어기사글번역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김 창 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켜 학교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새 세대들을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10권 476페이지)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갈 혁명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은 오늘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이 중요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특히 외국어교육부문에서 학생들이 언어지식과 함께 그 활용능력을 키울수 있도록 외국어교수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해나가야 한다.

현대일본어기사글의 문체론적 및 언어학적특성에 맞게 생동하면서도 정확하게 번역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수방법을 확립하는것은 학생들스스로가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가 되도록 하며 그들이 높은 외국어지식을 소유할수 있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현대일본어기사글번역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일본어기사글을 주체적립장과 계급적관점에서 보고 대하도록 하는것이다.

기사글을 주체적립장과 계급적관점에서 보고 대한다는것은 기사글의 실질적의미를 우리 혁명의 견지에서 분석판단하고 평가한다는것을 말한다.

우리의 모든 출판물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만들어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교양자적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한다.

그러나 일본의 출판물들은 다른 자본주의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자본주의사회의 반동적본질을 가리우고 극소수 독점자본가들의 리윤추구와 인민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데 리용되고있다. 때문에 일본의 기사글들은 대부분이 반동적통치계급의 리익에 맞게 씌여지고있다.

현시기 일본의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나타나고있는 기사글들의 경향성을 본다면 우선 일본반동들의 과거죄행을 합리화하고 재침으로 나가도록 적극 부추기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아시아나라들을 비롯한 전세계 나라들의 우려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출판보도물들을 리용하여 일본인민들속에 남아있는 평화의식을 없애고 과거에 일제가 저지른 침략전쟁과 죄행을 합리화하여 재침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우리는 일본어기사글을 읽고 번역한다 하여도 그것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리익에 맞

게 분석판단하여야 한다.

현시기 일본의 대중보도수단들에서 나타나고있는 기사글들의 경향성은 또한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출판보도물들은 약육강식의 생존법칙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하고 반동적통치계급의 이익에 맞게 근로인민대중을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기사글들을 《객관성》과 《중립성》의 간판밑에 그대로 내보내고있다.

례：三和は17日企業の決算が悪化する中、リストラを発表しました。

リストラした人は「希望退職者」を含め、240人です。

労組の激しい反発が予想されます。

三和がリストラしたのは今年に入ってもう二度目です。

(산화회사는 17일 기업결산이 악화되는 속에서 구조재조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조재조정된 사람들은 《희망퇴직자》들을 포함하여 240명입니다.

로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화회사가 구조재조정을 진행한것은 올해에 들어와 벌써 두번째입니다.)

우의 실례는 약육강식의 생존법칙만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영이 악화된 독점기업들이 회사직원들을 해고한 사실을 보도한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구조재조정》(リストラ)으로, 회사의 압력밑에 마지못해 회사에서 퇴직하는 사람들을 《희망퇴직자》(希望退職者)로 표현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불합리한 현실과 반인민적성격을 교묘하게 가리우고있다.

우리는 일본어기사글의 반동적성격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폭로비판하는 원칙에서 번역을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현대일본어기사글번역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관용구가 나타내는 생동성을 적극 살려 번역하도록 하는것이다.

일본어기사글에 쓰이는 관용구에 대한 번역에서는 우선 일본어관용구에 대응하는 우리 말의 표현적단위 즉 성구를 잘 찾아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말 성구는 고유한 민족적색채와 정서가 짙은것으로 하여 말과 글을 형상적으로 생동하게 표현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일본어기사글에 쓰이는 관용구를 번역할 때 말과 글의 내용에 알맞는 우리 말 성구를 잘 골라씀으로써 글의 생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본어관용구와 우리 말 성구의 의미적대응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말 성구와 조성도 같고 뜻도 같은 일본어관용구가 있다.

례：낮가죽이 두텁다 — 面の皮が厚い, 얼굴에 흙칠을 하다 — 顔に泥を塗る,

꼬리를 드러내다 — しっぽを出す, 머리를 쳐들다 — 頭をもたげる

一ヶ月も人の家でのんびりしているあの人は本当に面の皮が厚い人だ。

(한달동안이나 다른 사람집에서 태평스레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낮가죽이 두터운 사람이다.)

둘째로, 우리 말 성구와 조성은 같지만 뜻이 다른 일본어관용구가 있다.

일본어관용구의 구성재료와 구조가 우리 말 성구와 같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타내는 뜻이 언제나 같은것은 아니다.

실례로 일본어관용구 《名を売る》은 우리 말로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다》이며 그와 조성이 같은 우리 말 성구 《이름을 팔다》의 뜻은 《명예를 손상시킨다》로서 반의적인 관계에 있다.

례: 絵を展示会に出して名を売る。(그림을 전람회에 내놓아 이름을 떨치다.)

이름을 날리다 - 名を売る, 이름을 팔다 - 名を汚す

셋째로, 우리 말 성구와 조성은 다르지만 뜻이 비슷한 일본어관용구가 있다.

례: 다리를 쭉 펴고 자다 - 枕を高くする

등에 엮다 - 笠に着る

밀빠진 독에 물붓기 - 焼け石に水

沖縄の人々は米軍の軍用機で枕を高くして眠れない。

(오끼나와사람들은 미군군용기들로 하여 발편잠을 자지 못하고있다.)

넷째로, 우리 말 성구와 일본어관용구가 나타내는 여러가지 뜻가운데서 하나의 뜻만이 대응되는것들이 있다.

일본어관용구 《鼻にかける》는 《다른것보다 뛰어난것을 사람들앞에 자랑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우리 말 성구 《코에 걸다》는 《① 어떤것을 가지고 자만하여 우쭐거리다 ② 무엇을 가지고 자기가 의거하려는 대상으로 삼다》라는 두가지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본어관용구 《鼻にかける》는 우리 말 성구 《코에 걸다》의 첫번째 뜻과만 대응되며 우리 말 성구 《코에 걸다》의 두번째 뜻에 대응하는 일본어관용구는 《盾に取る》로 된다.

례: 力の強いのを鼻にかけていばっている。

(힘이 센것을 코에 걸고 우쭐거리고있다.)

ロシアはアメリカが人權報告書を盾に取って内政干渉をするといっている。

(로씨야는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코에 걸고 내정간섭을 하려 한다고 하고있다.)

일본어기사글에 쓰이는 관용구에 대한 번역에서는 또한 그에 대응되는 표현성이 풍부한 우리 말 단어나 단어결합을 잘 찾아쓰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일본어관용구에 대응되는 우리 말 성구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말의 표현성이 풍부한 단어나 단어결합들로 대역하여야 한다.

례: このほか生綿花、飼料用穀物などを減収見通し、これはこの夏までの熱波の影響がまだ尾を引いているためである。

(이밖에 생목화, 사료용알곡 등도 수확이 줄어들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올해 여름까지 있는 열파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기때문이다.)

論文の調子はやはり抽象的に見える、奥歯に物が挟まったような感じでもある。

(론문의 론조는 역시 추상적으로 보이고 어쩐지 석연치 않은 느낌도 있다.)

우의 실례들에서 쓰인 관용구 《尾を引く》와 《奥歯に物が挟まる》를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와 《어쩐지 석연치 않다》 등의 단어나 단어결합들로 대역해주어 글의 생동성을 살릴수도 있다.

벼랑끝전술 - 瀬戸際戦術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화살은 이미 날려졌다 - 采は投げられたり

일본어기사글에 쓰이는 관용구에 대한 번역에서는 또한 그 구성요소들의 본뜻을 우

리 말로 정확히 옮기는것이 중요하다.

일부 일본어관용구들가운데는 비유가 뚜렷하며 그 구성요소들의 본뜻을 우리 말로 그대로 옮겨놓아도 비유적뜻이 안겨오는것들이 있다.

이러한 일본어관용구들을 그 구성요소 그대로 번역해도 우리 말에 잘 어울린다.

례: 「日本のアルプス」といわれるこの山上に登れば、大きなビルが目に入るが、ここで恐ろしい殺人が行われた。

(《일본의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건물이 눈에 안겨 오는데 여기서 무서운 살인이 벌어졌다.)

우의 실례에서 《目に入る》는 우리 말로 그대로 옮겨놓아도 그것이 나타내는 비유적의미를 보고 잘 이해할수 있는 관용구이다.

현대일본어기사글번역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생략법을 옳게 이해하고 그것을 번역에 잘 활용하도록 하는것이다.

생략법은 말하려는 내용을 제한된 지면과 짧은 시간에 표현해야 하는 기사글의 특성에 맞으며 표현적효과를 높이는 수법으로서 신문을 비롯한 기사글들에서 많이 쓰이고있다.

례: オルゴンドレス、あなたもきらきら。

(오르곤옷을 입으면 당신도 반짝반짝 빛난다.)

政府の資金支援策で日産ほっと。

(정부자금지원대책으로 닛산이 안도의 숨을 쉰다.)

우의 실례들에서는 《ドレスを着る》, 《ほっとする》 등에서 쓰이는 동사들을 생략함으로써 제한된 지면과 시간에 맞추면서도 표현적효과를 높이고있다.

생략법을 리용한 일본어기사글에 대한 번역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은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생략된 표현들은 리해에서 오유를 가져올수 있으므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것은 풀어서 번역해주는것이 좋다.

례: 今度の選挙で自民党が勝利したのは決してその政治が優れているせいではない。

3版の有力議員が自民党に編入したのは今度の選挙の勝利の条件になった。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를 할수 있는것은 결코 그들의 정치가 우월하기때문이 아니다.

간판이 있고 지반이 있으며 돈이 있는 많은 유력의원들이 자민당에 편입된것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의 조건으로 되었다.)

우의 실례의 《3版》은 일본어의 《看板、地盤、かばん》을 생략하여 만든 말로서 일본정치가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는 《간판, 지반, 금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은 잘 알려져있지 않기때문에 풀어서 번역하여주는것이 좋다.

생략법을 리용한 일본어기사글에 대한 번역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석을 달아주는 번역수법을 적중하게 리용하는것이다.

이 방법은 사회문화적배경에서의 차이와 시청자들의 배경지식소유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쓰일수 있다.

례: IMFは今度のギリシア債務危機に関し、ギリシア政府に緊縮政策を実施するよう要求し、そ

れが実行されないと援助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発表しました。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번 그리스채무위기와 관련하여 그리스정부에 긴축정책을 실시할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 원조를 줄수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落書きは縦約1.6メートル、横約7メートルにわたっていた。

JR東日本千葉支社は巡回を強化するというが夜明かしの電車も多く、ずっと見張るのは大変だ。「自己主張したいなら別の方法で…」とJR。なんのために…。

(락서는 세로 약 1.6m, 가로 약 7m에 달하였다.

JR(일본철도회사)동일본지바지사는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밤새도록 운영하는 전차도 많아 계속 감시한다는것도 힘든 노릇이다.

《자기 주장을 하고싶으면 다른 방법으로…》라고 JR는 말한다.

누가 도대체 무엇때문에…)

우의 실례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JR》(일본철도회사)들에 주석을 달아주었다.

IMF나 JR는 명칭인것으로 하여 그것을 풀어 번역하여줄수 없으므로 이 표현들을 그대로 써주면서 인차 이해할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주었다.

우리는 일본어기사글번역을 비롯한 언어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유능한 실천형의 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일본어기사글, 일본어관용구